

## 프랑스, 농약용기 64% 재활용

### 프랑스

프랑스 작물보호산업계에서는 2008년 출하량의 64%에 해당하는 약 4천950톤의 농약 용기를 수거하였다고 프랑스 작물보호협회(UIPP)에서 발표하였다. 이는 2006년과 비교하였을때 27%가 증가되었으며 2010년까지 수거율 7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농약 용기 수거사업은 프랑스 작물보호협회의 재활용 사업인 Adivalor의 일환이다.

플라스틱 용기 중 약 500톤이 재활용되었다.

협회에서는 2002년 이후부터 약 9,500톤의 사용되지 않은 농약을 수거하였다 고 밝히고 있다. 이 계획은 폐기물을 처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협회에서는 수거량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대부분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농약으로 재가공 된다고 한다.

프랑스 작물보호협회에서는 유럽국가중 프랑스는 모든 제형의 폐농약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조직화된 기구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며, 수거 및 재활용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농업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프랑스 정부 환경 보존사업인 'the Genelle de l'Environment' 재활용 사업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중국

### 베트남

## 베트남, 농약의 80% 수입

베트남은 매년 12만~13만톤의 농약을 사용하고 있다. 금액으로는 5억달러에 이른다. 중국 언론에 보도된 베트남 식물보호부(Vietnam Department of Plant Protection)의 발표에 따르면, 자국내 농약의 약 80%가 수입되고 있다고 한다.

2008년 베트남은 10만6,700톤의 농약과 농약원료를 들여왔으며 금액으로는 4억

1,900만 달러를 수입하였다. 올해 1/4분기에는 2억3,100만달러의 농약을 수입하였다. 국가별로 주요 수입국을 보면 중국, 인도, 스위스, 싱가포르 및 독일을 들 수 있으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체 40%에 다다르고 있다. 베트남은 75개 농약제조 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소매상은 2만5,314개가 분포되어 있다.

## 중국, 병해충 전문 방제 확대

중국 농림성은 2020년까지 전 지역 작물의 50%에 대하여 전문적인 병해충 방제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 공언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2010년까지 과수원, 차 시범재배 및 수출품목 재배 농가단지에 작물보호 전문방제기술을 100% 체득토록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현재는 2007년도 보다 2배에 이르는 약 10만개의 작물 병해충 방제 전문팀을 보유하고 있다. 관계 당국자는 전문방제를 작물보호기술을 종합하여 보급, 적용시키는 방법으로 정의하고, 이와 같은 방제방법이 농민의 개별 방제보다 10~20% 효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엘살바도르

## 엘살바도르, 농약수입 20% 증가

중양아메리카 공화국 작물보호협회(APA)에 따르면, 엘살바도르의 농약수입이 2008년도 20.3% 증가하였고 \$28.6백만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전하고 있다.

협회에서는 농가에서 더 좋은 농약을 요구함에 따라 지난해 보다 판매량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이는 중양아메리카 관세동맹 이외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품목의 수입관세 철폐와 밀수농약에 대한 국경지역 단속 개선으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엘살바도르에서는 농약 수입시 지불금액에 대해 농림부와의 새로운 협상을 모색하였고, 제조시설 관리 및 농업인의 올바른 농약 안전사용 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